

서거정의 ‘경주십이영(慶州十二詠)’의 의미와 폐허미학적 소통방식[†]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Landscape Meanings and Communication Methods Based on the Aesthetics of Ruins in the Poem ‘Kyungjusipyung’ written by Seo Geojeong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oem ‘Kyungjusipyung(慶州十二詠)’ written by Seo, Geo-jeong(徐居正) describes sentiments felt for the ruined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Silla’s capital city, Kyungju.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Eight Sceneries(八景)’ as it conveys the strong metaphorical aesthetics of ruins as the episodes and figures are sung, as well as the myths and stories related to the representative holy places of the Silla culture: Gyelim(鷄林), Banwolseong(半月城), Najeong(蘿井), Oneung(五陵), Geumosan(金鰲山), the scenic beauty of deep placeness, Poseokjeong(鮑石亭), Mooncheon(蚊川), Cheomseongdae(瞻星臺), Boonhwangsa(芬皇寺), Youngmyosa(靈妙寺) and Grave of the General Kim Yu-Sin(金庾信墓).

Compared with the former “Eight Sceneries” Poems, including Seo Geojeong’s ‘Kyungjusipyung’,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theme recitation, as well as in structure and form, especially with the deep impression of the classical features of the meanings and acts. The sequence of theme recitation seems to be composed of more than two visual corridors visited during trips that last longer than two days. The dominant emotions expressed in this poem, through written in the spring, are regret and sadness such as ‘worn’, ‘broken and ruined’, ‘old and sad’, without touching on the beauty of nature and the taste for life that is found in most of the Eight Sceneries Poems. Thus, the feelings of the reciter himself, Seo, Geo-jeong, about the described sceneries and their symbolism are more greatly emphasized than the beauty of form. The characteristic aspect of his experiences of ruins expressed from ‘Kyungjusipyung’ is that the experiences were, first of all, qualitative of the aura conveyed; that is, the quality omnipresent throughout the culture of Silla as reflected in the twelv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In this poem, the cultural ruins of the invisible dimension such as the myths and legends are described by repetition, parallelism, juxtaposition, reflection and admiration from the antiphrases, as well as the civilized ruins of the visible dimension such as the various sceneries and features of Kyungju. This seems to be characteristic of the methods by which Seo, Geo-jeong appreciates ‘Silla’ in the poem ‘Kyungjusipyung’. Ruins as an Aesthetic Object imply the noble pride of Seo, Geo-jeong in identifying himself with the great nature of ruins. In ‘Kyungjusipyung’, the images of the ruins of Silla and Kyungju are interspersed in spite of his positive recognition of ‘the village of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artment of Landscap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Kyungju' based on his records. However, though the concept of ruins has a pessimistic tone connoting the road of extinction and downfall, the aspect here seems to ambivalently contain the desire to recover and revive Kyungju through the Chosun Dynasty as adominant influence on the earlier Chosun's literary tide. The aesthetics of the scenery found in Seo, Geo-jeong's 'Kyungjusipiyoung' contain the strongest of metaphor and symbolism by converting the experiences of the paradoxical ruins into the value of reflective experiences.

Key Words: Reminiscent Poem, Cultural Landscape, Myth, Symbol & Metaphor, Paradox

국문초록

팔경시 '경주십이영'을 통해 서거정은 고도 경주의 폐허화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감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주십이영'은 신라문화의 대표적 성지인 계림, 반월성, 나정, 오릉 그리고 장소성 깊은 승경인 금오산(남산), 포석정, 문천,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김유신묘 등을 중심으로 거기에 깃든 신화와 설화는 물론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존 '팔경'과는 다른 폐허미학적 메타포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경주십이영'은 서거정의 팔경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팔경시와 비교할 때, 제영 구조와 형식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의미와 행위를 부각시킨 인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경주십이영'의 제영 순서를 추적할 때 2일 이상의 유람시간을 통해 2개 이상의 시각회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봄철에 지어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활의 풍류' 그리고 '변성과 풍요'는 배제되고 대부분 오래 되고, 부서져 허물어지고, 늙고, 슬프고 등의 아쉬움과 슬픔의 정조가 지배적이다. 서거정은 '경주십이영'을 통해 경주의 다양한 경승과 경물 등 가시 영역의 문명적 폐허 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 등 비가시 영역의 문화적 폐허를 반복, 병렬, 병치 그리고 대조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회고와 영탄의 폐허미를 읊고 있다. 이는 서거정이 '경주'를 바라보는 사유방식이자 표현방식이며 기존 회고시의 전형적 특성으로 서거정이 '경주십이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폐허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하는 아우라, 즉 12가지 역사문화경관에 담긴 총체적 신라문화에 편재한 질에 대한 정성적 경험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읽혀진다.

기문 등을 근거로 '고도 경주'에 대한 서거정의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주십이영'에 담긴 신라와 경주의 이미지는 폐허로 점철되고 있다. 그러나 폐허가 소멸과 몰락의 길을 가리키는 비관주의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의 양상은 조선 전기의 문풍을 좌우했던 인물로서 조선 왕조를 통해 경주를 다시 상승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포괄하는 양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서 발견되는 풍경의 미학은 가장 은유적이면서도 문화적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폐허성을 반성적 경험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역설적 폐허미학의 소통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제어: 회고시, 문화경관, 신화, 상징과 은유, 역설

1. 서론

우리 산하를 읊는 조선 초기 팔경의 대상은 빼어나게 아름답고 숭고한 경치라야 했다(안장리, 2002). 서거정이 활동했던 조선 전기 명소의 팔경화는 국토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으며 관인의식의 발로였다(정중대, 1998). 신라의 고도 경주에는 예로부터 역사유적 외에도 경주인들에 의해 선정된 '삼기팔괴(三奇八怪)¹⁾(김정균, 1994, <http://blog.daum.net>)라는 명물과 기승(奇勝)이 있다. '삼기팔괴'를 노래한 시는 보통 '팔경시'로 불리는 작품들에 비해 고도 경주의 역사성과 특이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특성을 갖는데, '삼기팔괴'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주를 서술한 '팔경시'로 서거정(1420~1488)의 '경주십이영'이 있다. '경주

십이영'의 주경관대상은 신라왕궁이 있던 반월성과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 일대 등이 배제됨으로써 경주 제영시로서 대표성을 갖는 데에는 부족한 점은 있으나, 조선 전기 대표적 관료이자 유자(儒者)인 서거정의 시(詩)라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조선조 유학자들의 신라 인식의 지평을 이해하는 잣대가 된다(강석근, 2007). 서거정이 새 도읍지 한양의 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그 아름다움과 낭만의 흥겨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한도십이영시(漢都十詠詩)는 물론 이후 공주십경 등 도읍지와 지방의 산수미를 읊은 팔경시는 지역 풍물과 풍광의 서경적 표현에 충실했다. 그런데 '경주십이영'은 전체적인 시어와 그 표현에 있어 그 이전의 팔경시는 물론 기존 서거정에 의해 이름 붙여진 다른 팔경시나 팔경

과 비교해서도 그 구성이나 내용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내용도 부정적 이미지와 뉘앙스로 일관하고 있다. 즉 '경주십이영'은 음울(陰鬱)하고 퇴행적인 경관 분위기와 회고적인 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여타 그의 작품과 비교할 때 시적 성향이 매우 이질적이다. 이는 여말선초에 고려의 멸망을 목격하고 폐허지에서 느낀 감회를 적은 원천석(1330~?)이나 이색(1353~1419) 등에 의해 지어진 회고가와 공통적인 시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고시(懷古詩)²⁾는 고려 뿐만 아니라 태봉을 비롯한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의 고도(古都)를 대면하는 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의식이었다. 따라서 폐망한 옛 왕도의 풍물과 풍광은 어느 폐사지(廢寺地)에 홀로 세월의 무게를 인내하며 장중히 버티고 서있는 돌탑의 공허감과 같은 비극적인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동시에 강렬한 미적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도를 소재로 하는 문인들의 회고와 반성은 문학적 관습인 동시에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도시와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는 '황성옛터'³⁾나 '신라의 달밤'과 같은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에서 드러나는 폐허와 허무의 정서와 동질적이며 직관적 표현에 의한 동일한 범주의 아름다움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천년 도읍지의 경승과 경물을 많은 부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회고한 조선의 대표적 관인학자 서거정의 시 '경주십이영'에 녹아있는 경관 인식 및 표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경주십이영'에 표현된 시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경관상을 개관하고 '경주십이영'에 표현된 시어와 시구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경주십이영'에 담긴 경관 의미는 물론 미적 표현 등 경관 소통 방식과 그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동향

폐사지(廢寺址)와 같은 견고한 '침묵'의 공간, 그러나 그것은 허공과 같아서, 햇빛이든 바람이든 구름이든 혹은 지나가는 길손이든 무심으로 맞아준다. 절터 중에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품고 있는 사적지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폐사지의 진정한 국보적 의미는 '텅 빈 공간'으로서의 위엄으로도 보인다. 시간 앞에서 풍화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땅, 물, 불, 바람'으로 돌아간다. 텅 빈 옛 절터에서 이러한 실상을 관조하는 것이야말로 폐사지에서 느끼는 옛 풍경의 매력일 것이다(<http://ask.nate.com>). 강우방(2002)이 경주 남산 열암곡 절터에서 조우(遭遇)한 석가여래상을 비롯한 그 주변 폐허지에서 맞본 비장미 또한 슬픔보다도 카타르시스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강영조(2003)가 이미 서거정의 시를 차운한 어세겸의 '경주십이영' 중 '분황폐사(芬皇廢寺)'에 담긴 풍경 이미지를 '폐허미학'이라고 간주한 바와 같이 '경주십이영'

에는 이전의 팔경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또 다른 경관에 대한 미적 소통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강영조는 폐허를 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는 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에 대한 상대적 왜소감, 그리고 그 폐허를 통해 거대한 자연과 동일시하는 자기 숭고의 자부심이 중복되어 있음을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는 루이스 칸(Louis Kahn)이 로마를 비롯해 그리스, 이집트 등의 고대 유적지를 유람하면서 폐허성의 경험(Ruins experience)을 통해 전통의 해석과 계승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했음(박규환과 이동연, 2008)을 볼 때 매우 유익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은 폐허에서는 자연이 정신에 대해 우위에 선다고 하는 등식의 틈새가 깨지고, 마침내 우주적인 비극으로 진화되는 일종의 비극을 '폐허의 매력'으로 보았다. 또한, 알프스가 갖는 매력에 견주면서 "폐허의 매력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이 마침내는 실로 자연의 산물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민주식, 2005).

브록스는 워즈워드의 소네트 'Composed upon Westminster Bridge'를 분석하면서 폐허된 도시경관의 진상을 역설의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시에서는 런던의 삭막하고 폐허화된 도시풍경을 마치 아름다운 자연인양 노래하여 황폐화된 도시 런던의 모습을 풍자(김학동과 조용훈, 1997)함으로써 폐허를 역설적인 아름다움의 모순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조경진(2006)은 조경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폐허미'에 주목하면서 청계천에 남겨진 세 개의 교량 기둥, 서울숲 갤러리정원에 남겨진 침전조 기둥과 벽체 그리고 선유도공원 '녹색기둥의 정원'에서 발견되는 검게 녹슨 기둥의 의미소통적 필요성을 직시한 바 있다. 배정한(2006)은 공교롭게도 동일한 책에서 동일한 대상인 선유도공원에서 보이는 허물어진 콘크리트, 시멘트 기둥의 거친 질감, 녹슬고 부식된 철관 배관과 같은 시간의 파편에서 느껴지는 모호한 분위기를 폐허로, 그 시각언어와 설계기법을 폐허가 연출하는 숭고의 미학으로 정의한 것에서 볼 때, 폐허미와 숭고미는 차원이 다르면서도 또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의식임을 직감할 수 있다. 토인비(A. Toynbee)는 캄보디아의 타 프롬(Ta Prhom)사원⁴⁾에 대해 '자연의 회귀'와 폐허의 미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을 지적(<http://blog.naver.com>)한 바와 같이 유적(遺蹟)을 휘감고 있는 나무뿌리, 허물어져 버린 석재의 잔해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음영 사이로 보이는 빛과 공기의 파편, 이 모든 것이 파괴와 융합의 '폐허미학'을 생성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더 이상 '폐허미'를 중요한 경관미적 표현 장르이자 언어로 유형화하는데 인색할 수만은 없다.

폐허화된 공간이나 경관에 대한 미적 발견은 근대 미학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승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래경관 "팔경"에서 숭고미나 우

아미 등의 고전적 아름다움과는 다른 형태의 미가 표출되고 있음은 매우 생소하지만 주목할 만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폐허 경관에 대한 미적 시선이 고유한 우리의 선경후정의 표현으로 일관한 우리나라 고유 회고시의 소통 정서와도 맞닿아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탐구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III. 연구방법

문헌고찰을 통해 작가 서거정의 시의식(최명규, 1981; 이종건과 박희웅, 1985; 박중혁, 1989; 민병수, 1988; 이종건, 1990; 안미영과 임기목, 2001; 정소연, 2002)과 음영시기에 따른 시대상(한인석, 1989; 송희준, 1996; 박성순, 1990)을 개관하는 한편 '경주십이영'의 특성을 중국 소상광경은 물론 이 시기 전후의 기존 광경과의 차별점을 문헌 비교를 통해 밝혔다. 7인율시로 구성된 '경주십이영'의 내용분석은 강석근(2007)의 '경주십이영' 전문 해설에 의존하였고, 부분적으로 안장리(2002)의 자료를 보완하였다. 시의 내용 풀이와 제영 순서를 근거로 음영시기(계절)와 서거정이 '경주십이영' 각 주 경관대상을 유람한 시각회랑을 유추하였다. 또한, 경관대상 및 등장인물과 고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서거정이 본 그 당시 경주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단상과 미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관대상 및 시구를 구성하는 어휘소를 분절하여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사건과 인물로 구분하여 화자가 지시하는 지칭사항과 그 의미를 독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징의 해석기준으로 텍스트 외적 해석(extra textual)과 내적 해석(intra textual)(김학동과 조용훈, 1997)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전자는 '경주십이영'에 등장하는 인물, 신화, 고사 그리고 사건 등이며, 후자는 상징적 요소가 작품속에서 지니는 위치, 그 역할, 다른 경관 및 사건요소들과의 맥락 등으로 세분하면 우월성(prominence), 반복(repitition), 병치(juxtaposition), 대조(antiphrase), 병렬(parallelism) 그리고 아이러니(irony)와 역설(paradox)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을 회고와 영탄의 표현을 빌어 이루어진 변증법적 방법으로 전개된 폐허미학적 시로 규정함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며, 그 논거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경주십이영'이 기존의 광경시나 서거정 자신의 광경시와는 다른 문체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시라는 점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서거정이 읊은 '경주십이영'에 나타난 현실감각은 강력한 직관과 환기력에 의해 표상되고 있음이 발견됨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주십이영'의 경관대상은 물론 각 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요소 즉 전체의 효과를 아우르고 있는 수사적 표현방식 즉 수사학적 표현에 주목하였다. 수사학은 기본적으로 효과적 담론을 산출하기 위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학문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시의 배치와 배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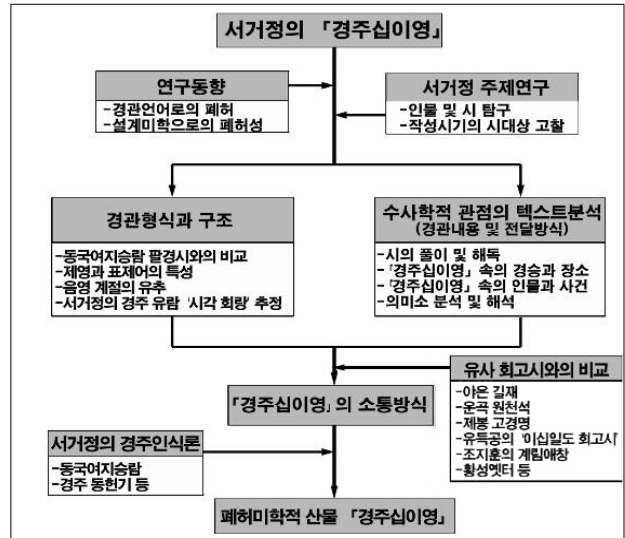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체(style) 그리고 문체(수사적 표현: rhetorical figures)⁵⁾의 문제이다. 수사학적 방법을 도입한 것은 '시', '경주십이영'에 담긴 수사학적 폐허미학적 요소와 표현의 준거를 찾기 위함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시의 감상 및 풀이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보다 인상적이며 직관적임에 따라, 개별 지시문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경주를 비롯해 폐망한 옛 도읍지를 소재나 주제로 읊은 여타 '회고적 성격의 시'와 서거정 자신의 '경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문 등의 비교를 통해 '경주십이영'에 등장하는 승경과 경물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회고시적 소통방식의 특성과 견주어 보았다.

본 연구의 흐름을 연구내용과 관점을 위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관련 연구동향 및 서거정의 관련시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구축한 뒤 경주십이영의 경관형식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경관형식과 전달방식의 고찰을 위해 시의 내용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경주십이영에 등장하는 경승과 장소 그리고 인물과 사건은 어휘 및 의미소 분석을 통한 표현방법에 주목하는 한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경주십이영의 표현방식이 유사 회고시의 전형적 표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주십이영에 표현된 부정적 역사경관적 관점과 인식이 기존 '서거정의 경주 인식' 관점과의 일치성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주십이영의 의미와 소통방식을 논의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서거정과 경주십이영

서거정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문사로 호는 사계(四佳) 또

는 특이하게도 정정정(亭亭亭)이다. 1467년부터 23년간 문형(文衡)을 전담해서 조선 전기 문풍을 좌우했던 인물로 그가 42세였던 1462년(세조8년) 공무로 영천에 들렀다가 경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계집(四佳集)’ 문집 제 1권, ‘경주의풍루중신기(慶州倚風樓重新記)’에 “임오동 봉래제지(壬午冬奉使再至)”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주십이영’은 아마 이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⁶⁾. ‘경주십이영’은 후인들의 경주 제영에 대한 규범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거정은 조선 전기 관인문학의 주역으로 23년간이나 대제학을 지내면서 고려 전기 김부식의 역할을 이은 인물로 평가된다. 서거정은 자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방법으로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인시화 등의 역대의 사실, 문장 등을 편찬하는데 주력하였으며(안장리, 1997; 2002), 특히 ‘승람’ 이전까지 있던 팔경시를 모두 모으고 자신도 27편의 팔경시 가운데 12편을 지었다. ‘승람’에 실린 12편의 팔경시 중 차운한 팔경시는 안축의 삼척팔경시, 윤상의 문경팔경시, 최숙정의 여주팔영시 등이며, 별도로 임원준과 양성지의 부탁을 받고 지은 풍천팔경시와 통진팔영시가 있다. 한편, 승람은 서거정의 편찬 이후 1530년(중종 25년)에 이행, 홍연필 등에 의하여 증보가 이루어지면서 성현의 평해팔영시와 평양팔영시 그리고 김종직의 선산십절시와 이행의 소오동십영시가 추가되었다. 팔경시 중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원전성(原典性)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대상인 ‘경주십이영’을 비롯하여 ‘평해팔영시’, ‘비인팔경시’, ‘공주십경시’, ‘대구십영시’, ‘밀양십영시’ 그리고 ‘한도십영시’가 있는데, ‘경주십이영’은 어세점이 차운하였고, 후대에 고경명에 의해 7언절구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이 중에는 특히 십경시가 많아 보이는데, 이 가운데 공주, 밀양, 대구를 대상으로 한 십경시는 유사한 점이 많으며, 차운한 팔경시를 제외한 9편을 살펴볼 때, 소표제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송객(送客)(4회)·추월(秋月)·적설(積雪)·심승(尋僧)·조어(釣魚)(3회)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관요소가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볼 때 관습적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심경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경주십이영’은 회고시의 성격이 강하며, 기존의 유형과는 전혀 다른 경관언어가 발견되고 있다. 즉, 기존 팔경시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밝음(秋月), 풍년의 기약(積雪), 벗과의 이별 슬픔(送客), 탈속의 흥취(尋僧), 어부의 흥취(漁火와 泛舟) 그리고 들놀이의 흥취(賞花) 등을 담아 국토에 대한 자부심과 관료로서의 선치(善治)와 유락 등의 즐거움과 흥취를 표현하고자 했던 흔적을 ‘경주십이영’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

2. 경주십이영의 형식 및 구조

‘경주십이영’은 여타 팔경시와 함께 서거정의 시문을 모은 사가집(四佳集)에 전해오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경의 원형으로 잘 알려진 소상팔경의 전형적 방식인 ‘장소+시각+경

표 1. 경주십이영의 형식 비교

구분	八景	형식구조	비고
경주십이영	1.계림영이(鷄林靈異)	鷄林(장소)+靈(시각)+異(경물)	鷄: 닭
	2.금오기승(金龜奇勝)	金龜(장소)+奇(의미)+勝(경물)	鰲: 자라
	3.포정감회(鮑亭感悔)	鮑亭(장소)+感悔(행위)	鮑: 북
	4.문천빙망(蚊川聘望)	蚊川(장소)+聘望(행위)	蚊: 모기
	5.반월고성(半月古城)	半月(장소)+古(의미)+城(경물)	古
	6.첨성노대(瞻星老臺)	瞻星(장소)+老(의미)+臺(경물)	老
	7.분황폐사(芬皇廢寺)	芬皇(장소)+廢(의미)+寺(경물)	廢
	8.영묘구찰(靈妙舊札)	靈妙(장소)+舊(의미)+札(경물)	舊
	9.오릉비조(五陵悲弔)	五陵(장소)+悲(의미)+弔(행위)	신라 신화의 탄생과 소멸
	10.남정청상(南亭淸賞)	南亭(장소)+淸(의미)+賞(행위)	경물의 소리
	11.문옥적성(聞玉笛聲)	聞(행위)+玉笛(경물)+聲(청각)	경물의 소리
	12.과김유신묘(過金庾信墓)	過(행위)+金庾信墓(장소)	5자의 파격성

물’의 배열이 아닌 ‘장소+의미+행위 또는 경물’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3. 경관의미와 소통방식

1) 경주십이영시의 경관 내용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의 표현방식을 강석근(2007)의 한시해설을 근거로 풀이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서거정이 ‘경주십이영’을 저술한 시기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462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작정시기(계절)는 시 속에 담긴 시어를 통해서만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이고 은유적 표현을 배제하고 계절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주십이영’속의 시어(詩語)는 ‘2. 금오기승’에 “냉이풀이 무성하고(荒薺合)”와, “봄 시름(春愁)”을 들 수 있다. 또 ‘9. 오릉비조’에서 “봄 나무에서 해마다 백로만이 우는구나(春樹年語伯勞)”를 볼 때 백로의 짝짓기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계절적으로 늦은 봄인 음력 4월 초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10. 남정청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릉의 대나무 숲은 지금도 통통하구나(竹筍筵至今肥)”에 언급된 ‘죽순이 나는 시기는 해에 따라 상당한 차가 있지만 보통 양력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인 점에 비추어 유추할 때, ‘경주십이영’이 저작된 계절은 대략 녹음방초가 성숙기로 접어들 무렵인 음력 3월 말 또는 4월 초의 만춘(晩春)으로 짐작된다. 표 2에서와 같이 시어의 내적 해석을 통한 전달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옛 일과 현재의 상황을 회고하는 대조(antiphrase)의 방식과 옛 신화와 전설 그리고 고사를 각각 구분하여 상기하는 병렬(parallelism), 3개 이상의 추상

표 2. 서거정의 경주십이영 풀이

표제어	제영풀이	경주십이영 풀이	전달 표현방식 (내적 해석)	주대상	
계림영이	계림의 영이함	金雞唧嘶樹蒼蒼 九百年來葉盡黃 朴祖開邦傳鶴祖 金王納土似錢王 傷心三姓皆顛蹶 滿目諸陵已廢荒 千古英雄無限恨 淡烟衰草更斜陽	금닭이 울던 계림에는 나무들이 푸르고 푸르더니 구 백년이 흐르자 잎들은 온통 시들어 버렸네 박씨 조상이 나라를 세워 석씨의 조상에게 전하고 김씨왕이 땅을 바치니 錢王의 고사와 비슷하도다 세 성씨가 모두 망해버린 것을 슬퍼하는데 눈 가득한 여러 능은 이미 황폐하도다 천고의 영웅으로 무한한 한을 갖게 하는데 엷은 연기 속에 시든 풀위로 다시 석양이 비추네	대조 (antiphrase)	계림
금오기승	오산의 괴이한 기승	海上金龜眺望宜 風流文物異前時 破碑或見金生字 古寺曾留致遠詩 甲第有基荒薺合 名園無主斷橋危 春愁如許深於海 鐵笛何人滿意吹	바닷가에서 금오산을 바라보기 좋건만은 풍류와 문물은 지난 시절과 다르구나 깨진 비석에는 간혹 김생의 글씨가 보이고 옛절에는 최치원이 남긴 시가 남아 있네 터만 남은 저택에는 냉이풀이 무성하고 주인없는 유명한 정원에는 끊긴 다리 위태하네 봄 시름이 이와 같아 바다보다 깊은데 그 누가 쇠피리를 흥겹게 불고 있는가	병렬 (parallelism)	금오산 (남산)
포석감회	포석정에서의 감회	鮑石亭前立馬時 沈吟懷古思依依 流觴曲水基猶在 醉舞狂歌事已非 未有荒淫不亡國 那堪慷慨獨蓑衣 行吟吟過五陵路 石堡金城共落暉	포석정 앞에서 타고 가던 말을 세울 때 옛날을 회고하며 시 읊조리니 생각이 복잡하네 유상곡수하던 터는 아직도 남아 있던 만은 취해서 춤추고 미친 노래 부름은 이미 잘못이었네 황을하여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시를 읊조리며 오릉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갈 때 돌보루와 성곽에도 저녁 해가 같이 떨어지네	병치 (juxtaposition) 아이러니 (irony) 냉소 (sarasm)	포석정
문천빙방	문천에서 옛일을 생각함	行渡蚊川過別村 故都遐想不勝繁 鳥啼深樹思金甲 蛙吹寒塘憶玉門 白乳荒唐崇像教 黃童慷慨報君冤 水流不洗前朝恨 蕩漉須憑北海尊	길가다 문천을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려니 아스라한 옛도읍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네 새 우는 깊은 나무에서 금갑의 고사를 생각하며 개구리 우는 쓸쓸한 연못에서 옥문지를 추억하네 황당한 흰 첫 이야기로 불교를 신봉하였고 황장랑의 비분한 마음은 임금의 원수를 갚았네 흐르는 물에도 전조의 한을 씻을 길이 없으니 씻으려면 반드시 북해의 술항아리에 의지해야 하리	병렬 (parallelism) 역설(paradox) 냉소 (sarasm) 허풍 (hyperbole)	문천
반월고성	옛 반월성	半月城頭日欲西 遠游情思轉淒淒 靑浮楊麗雲烟老 黃落始林歲月迷 明活村南雲渺渺 興輪寺北草萋萋 百年坎軻知何用 贏得樽前醉似泥	반월성 머리맡에 저녁 해가 지려 하는데 먼 길 떠나온 내 마음 더욱 처량하다 푸르게 뜬 빛 양산 기슭에는 구름연기도 늙었고 낙엽 떨어진 시립에는 세월도 흥미하구나 명활촌 남쪽에는 구름이 아득한데 흥륜사 북쪽에는 풀들만 우거졌구나 평생 불우하니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고 넉넉한 술동이 앞에서 진탕 취해보련다	병렬 (parallelism) 허풍 (hyperbole)	반월성
첨성노대	오랜 첨성대	古臺牢落號瞻星 遺跡依然近月城 地瘠天荒年已久 風摧雨剝勢會傾 孤山落日金仙影 故壘悲秋玉笛聲 三姓千年曾一瞥 不堪登眺更傷情	옛 누대 우뚝하니 그 이름 첨성대라 그 자취 여전히 월성에 가까이 있네 땅이 여위고 하늘도 거칠어진 세월이 오래어 비바람에 깎여 형세는 일찍부터 기울었네 의로운 산에 지는 해는 금신선의 그림자요 옛성루에는 가을이 슬퍼 옥피리 불어 되네 세 성씨의 천 년도 일찍이 한 순간이었던가 올라 살펴보고 다시 슬픔을 견디지 못하네	대조 (antiphrase)	첨성대
분황폐사	폐허의 분황사	芬皇寺對黃龍寺 千載遺基草自新 白塔亭亭如喚客 靑山默默已愁人 無僧能解前三語 有物空餘丈六身 始信閭闔半佛宇 法興何代似姚秦	분황사는 황룡사와 마주 대하고 있는데 천년의 남은 터에 풀만 스스로 세롭구나 흰 탑은 우뚝하여 나그네를 부르는 듯하고 말없는 청산은 사람들을 우수에 잠기게 하네 前三三이라는 화두를 아는 중들 남아 있지 않는데 부질없이 장육존상만이 전해지고 있네 비로소 여염집의 절반이 절인 줄 알겠으니 법흥왕의 어느 때가 요씨의 후진을 닮았던가	병렬 (parallelism) 역설(paradox) 냉소 (sarasm)	분황사

표 2. 계속

표제어	제영 풀이	경주십이영 풀이	전달 표현방식 (내적 해석)	주대상
영묘구찰	옛 영묘사	舊刹巖嶮接上蒼 千年往事已淒涼 石龕零落埋幽徑 銅鐸丁當語夕陽 遺老至今談女主 古鍾依舊記唐皇 摩挲短碣移時立 剝落莓龍字半荒 옛질이 우뚝하게 솟아 하늘에 접했는데 천년의 지난 일들이 이미 처량하구나 돌 감실은 퇴락하여 깊은 잡초 길에 묻혀 있고 풍경소리만 덩그랑 덩그랑 석양에 울고 있네 옛노인들 지금까지 여왕이야기 주절거리고 옛종은 의구하게 당 황실을 기념했네 작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걷다가 섰노라니 벗겨지고 이끼 끼어 글자의 반은 황폐하도다	대조 (antiphrase) 냉소 (sarasasm)	영묘사
오릉비조	오릉을 조상함	徐伐千年王氣銷 五陵深處甲前朝 馬嘶龍誕會荒怪 鷓浦鷄林共寂寥 玉帶寶隨金櫃盡 銅駝影接石羊搖 更無齒餅能傳祚 春樹年年語伯勞 서라벌에 천년의 왕기가 사라지니 오릉의 깊은 곳에서 전왕조를 조상하네 말이 울고 용이 낳은 일들이 황당하고 작포와 계림은 함께 적막하게 되있도다 옥대와 보물은 금궤와 함께 사라졌고 동낙타의 그림자는 돌 양 가까이에서 흔들리네 다시 떡을 씹어 왕위를 전할 수 없는데 봄 나무에서 해마다 백로만이 우는구나	조소 (mycterism) 반복(repetition)	오릉
남정청상	남정에서의 맑은 감상	城郭人民是又非 倚闌豪嘯憶忘歸 闕英殿裏龍應去 脫解海邊鷓不依 蘿井樹陰依舊暗 竹陵筍穰至今肥 可憐當日繁華地 天地無情幾夕暉 성곽과 인민들이 남아 있나 아니면 사라졌나 난간에 기대어 힘차게 휘파람 불며 돌아갈 줄 모르네 알영전 속에는 응당 용이 떠나갔을 것이고 탈해가 나온 해변에는 까치도 깃들지 않네 나정의 나무그늘은 옛날처럼 어둡고 죽동의 대나무 순은 지금도 통통하구나 가련하게도 그 당시의 변화했던 땅에 무정한 천지는 몇 번이나 석양이 빛났던가	대조 (antiphrase)	나정
문옥적성	옥적소리를 들음	故國興亡一笑新 當時三寶盡成塵 金輿自屈如何主 玉笛仍傳又幾春 愛惜只堪存古物 風流不必效前人 殘星落日休三弄 長使英雄淚滿巾 옛나라의 흥망도 한 웃음에 새로운데 당시의 세 가지 보물 이제 다 티끌이 되었네 금수레로 스스로 항복했던 임금은 그 누구이며 옥피리가 전해 온 지 또 몇 해나 흘렸던가 아까워서 다만 옛 보물로 보존할 뿐이요 풍류는 반드시 옛사람을 따를 것이 없네 해지는 허물어진 성벽에서 피리를 불지 말라 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수건을 적시게 하네	대조 (antiphrase) 반복(repetition)	삼보 옥적
과김유신묘	김유신묘를 지나며	金老墳前石獸危 千年劍氣尚奇奇 綸巾白羽追前業 丹荔黃蕉起後思 有客題詩誇壯烈 無人穿塚近要離 天官寺古知何處 萬古蛾眉姓字隨 김유신의 무덤 앞에 돌짐승 우뚝하고 천 년의 칼 기운은 아직도 기이하다 운건과 백우선으로 제갈량의 업적을 좇고 붉은 예지와 푸른 파초의 향기는 후인 생각 일으킨다 시를 지어 장열함을 자랑하는 길손이 있으나 요리 가까이에 무덤을 쓸 수 있는 자는 없네 천관사는 오래되었으니 이제 어디에 있는가 만고의 아리따움은 이름을 따라 전해 오네	우월성 (prominence) 병렬 (parallelism)	김유신묘

(追想)으로 연이은 반복(repetition),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인과응보를 노래하기 위한 병치(juxtaposition) 그리고 아이러니의 변형적 수사법(김학동과 조용훈, 1997)으로 등장하는 냉소(sarasm)와 조소(mycterism) 그리고 서거정의 심정으로 “술에 취해보리라”는 허풍(hyperbole)에 까지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신라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회고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또한, '12. 과김유신묘'에서는 무덤 앞에 선 돌짐승의 우뚝한 모습과 검기(劍氣)로 표현된 시어는 김유신의 위대함과 무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 임금에 대한 충성과 백전백승의 신화를 간직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12수 중 유일하게 우월성(prominence)의 포지티브한 수사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

서 텍스트 '경주십이영'의 내적 전달방식으로 볼 때 극단적 상징표현과 아이러니가 강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현재로 이분화된 경관상에 대한 역설적 감흥을 염두에 둔 수사학적 장치로 인식된다.

2) 서거정의 '경주십이영' 체험 시각회랑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엔진 다음(Daum)의 경주시 항공사진을 밑그림(<http://local.daum.net/map>)으로 '경주십이영' 상에 드러난 주대상을 제영순으로 표시하고 서거정의 유람 여정을 추정해 보았다. 이에 의하면 경주읍성내 객사(동경관)를 떠나 계림-금오산-포석정-문천-반월성-첨성대-분황사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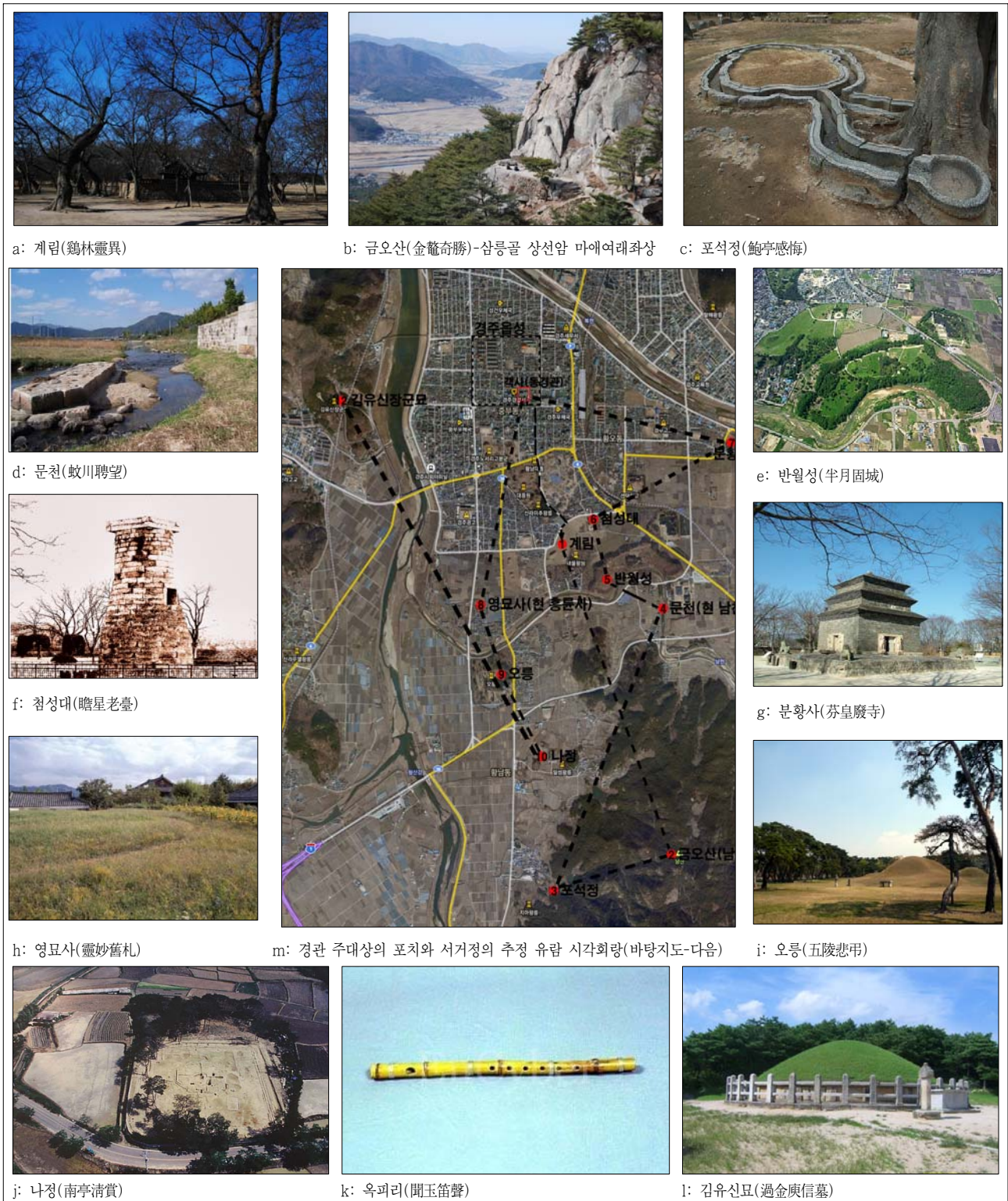


그림 2. 경주십이영의 주대상 및 서거정의 유람 시각회랑

유하여 다시 객사로 귀가해 1박하고 다음 시기에 영묘사-오릉-나정-김유신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영순서 그대로 유람이 진행되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제영

순서에는 작성자의 의도가 더욱 강하게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한 사료나 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제영 순의 유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시어

와 전체 시의 의미 맥락을 간추려 본다.

3) '경주십이영'의 소통방식

꽃 피는 봄철에 작성된 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십이영' 중 '12. 과김유신묘'를 제외하고는 시 전체를 감도는 시어와 분위기는 봄의 탄생과 희망보다는 늦가을의 조락과 퇴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단지 망국의 비운을 겪은 경주지역을 돌아보는 여행객의 회고에서 나온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주라는 특정 공간을 소재로 읊은 경주제영시에는 시인들이 바라보는 경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서와 태도가 나타난다. 여말선초에 존재했던 수많은 회고가(懷古歌)들은 고려의 멸망을 목격하고 느낀 감회를 적은 것이다. 원천석, 이색 등을 비롯한 고려 유신들이 남긴 시조들에서도 왕조의 종말에 대한 전시대에 대한 회고의 분위기가 읽혀진다. 아래와 같은 시 속에서도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을 둘러보며 느끼는 '회고의 정'과 '인생의 덧없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 드니
산천은 의구 되 인물은 간되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治隱) 길재>

홍망이 유수 니 만월대도 추초기로다
오백년 도읍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운곡(耘谷) 원천석>

이러한 회고시는 고려뿐만 아니라 태봉을 비롯한 백제·고구려·신라의 고도(古都)를 대면하는 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발로였다. 고도를 소재로 하는 문인들의 회고와 반성은 문학적 관습인 동시에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도시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서거정이 송도(松都)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된다.

지금 <유송도록>을 살펴보고 두루 고궁을 방문하니 늘어진 기장이 눈에 가득하고 곡령의 기가 쇠했으며 용정이 이미 매워졌다. 찰벼의 밭과 격구장을 슬퍼하였다. 상하의 오백년을 우러러보고 굽어보니 솟아오르는 회포는 곧 그 말쑥이 강개하고 침울하였다. 영웅과 호걸, 공후와 장상의 풍류는 비록 사라졌으나 유풍은 상존하여 자하동이 쓸쓸하고 미혹하며, 추암은 황량하여 구름은 날고 새는 떠났지만 상처받은 영혼을 돌아보니, 그 말쑥은 슬프고 유장하다(7).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돌아보고 느낀 서거정의 비감(悲感)은 경주를 보는 시각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시속의 정서는 맥수지탄(麥秀之嘆)⁸⁾의 고사와 두보의 '춘망(春望)' 시구인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이 제기한 시상의 충실한 수용과 환골이 그 주류를 이루는데 패망국에 대해 이 같은 시상을 환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뿐 아니라 고도는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었다(강석근, 2007).

또한, 임진왜란시 순절한 계봉(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이 분황사터를 찾아 읊었다는 다음의 시도 이러한 정조(情調)를 잘 반영하고 있다.

草沒浮屠路已迷	부도는 풀에 묻혀 길도 이미 없거늘
野人傳道古招提	들판의 농부들은 옛 절터라 전하누
金生碑字磨風雨	김생의 비석 글씨 비바람에 닳았는데
強拂苔痕檢舊題	애써 이끼 헤치며 옛 글을 찾아보네.

한편, 조선과 국시가 다른 유학자들의 신라관에는 전조(前朝)인 신라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식자들의 일반적 관행이지만 천 년을 이어온 문화를 비판적인 측면에서만 읽어내는 것은 반드시 건전한 시각이라 할 수는 없다. 강석근(2007)은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서 "천 년 사직을 이은 신라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의의를 현창하기보다는 망해 버린 신라문화를 비난하고 폄훼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어디까지나 회고시의 성격과 시의 내면에 깃든 역사적 표현방식을 간과하고 단지 외면에 드러난 시어를 중심으로 한 표피적인 단견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서거정은 기록에서 지워져 있던 신라 개국 신화를 간직한 나정(蘿井)을 십이영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문기(2009)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 어떤 문헌에도 보이지 않던 나정이 15세기 후반에 재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특히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나정이 경주의 고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경주십이영'에서도 역시 제10영의 '남정청상(南亭淸賞)'을 조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정은 15세기 후반에 재발견되었고, 그 기록의 중심에 서거정이 있음은 그의 신라 문화에 대한 배려이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경주십이영'을 일개 유학자가 읊조린 '신라문화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찬 서경시'로만 치부하기에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다. 앞서 기술하였지만 서거정은 4차례나 경주를 방문하였다. 또한, 집현전 학자를 거쳐 사가독서에 선임되어 역사, 지리, 병학, 역학, 율학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두루 익혀 통유(通儒)의 길로 들어선 서거정(김성우, 2006)에게는 이미 거듭된 경주 유람을 통해 관습적 상징 뿐만 아니라 문화상징을 통한 경주의 이미지가 각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경주십이영'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경주십이영'과 같은 회고적 면모가 강한 한시로서 '이십일도 회고시(二十一部懷古詩)⁹⁾가 있다. 이 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9~1807)이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왕조까지 조선 강역을 존멸했던 21개 왕도를 회고한 7언절구의 한시이다. 심경호(2005)는 유득공의 '이십일도 회고시'의 음영주제를 '옛 도읍의 역사미'로 보고 이중 경주에 대한 6편의 시적 이미지와 주제를 "기품있는 유산,

경주"로 규정한 바 있다. 6수로 구성된 '이십일도회고시'의 시어를 살펴보면 1수에서는 서라벌의 변화함과 효소왕의 만파식적과 삼성(三姓)의 천년사적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2수에서는 지나친 불교문화의 숭상과 안압지의 황폐함을, 3수에서는 서출지(書出池) 근처에서 소지왕비(昭智王妃)의 비행(非行)을 알리는 글발이 발견된 고사를, 4수에서는 금오산과 가야산 그리고 계림에 깃든 허무와 쓸쓸함을, 5수에서는 창립사의 종소리를 통한 공허와 김생과 술거의 행적을, 그리고 6수에서는 문친가의 꽃과 버들, 유상곡수터 포석정의 비애와 회한을 읊고 있다. 이렇듯 유득공의 '이십일도 회고시'에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주십이영'에서 대부분 언급되는 경승과 인물 그리고 장소를 통한 감회와 망국의 원인에 대한 비평의식을 표출하거나 흥망성쇠의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회고시가 갖는 전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이 때 표면적으로는 시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자와 비판을 통해 암시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고도의 문화를 표현하였다면 내면적으로는 과거 역사의 자취를 현재의 유적지 위에 불러 일으켜 망국에 대한 감상을 표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나마 이상적 정조가 농후하게 배어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 건국 초기 한양을 대상으로 지어졌던 한도팔경시 등은 점차 그 대상지역을 넓혀가게 되며, 그 선두에는 당시 왕실의 공식 사업이었던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영향이 크다(최은주,

2001). '동국여지승람' 서문에 "그리고 제영으로 끝맺은 것은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하여 칭송함은 실로 시와 문(文)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이는 당시를 태평성국(太平盛國)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이고 낙관적 태도에서 외국풍물에 기탁하던 경관 찬양방식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경치를 찬양하고자 했던 의식이 팽배되었다고 본다.

서거정은 동국여지승람을 저술하면서 경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문을 남겼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위주, 1986).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조령(鳥嶺)의 남쪽은 본래부터 이름난 곳과 경치 좋은 땅이 많다고 일컫는다. 경주는 곧 예전의 계림(鷄林)으로서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수는 빼어나고 풍경은 기절(奇絶)한데, 옛 어진 이들의 유적이 많아서 멀리 노니는 사람의 질탕(跌宕)한 기운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객관이 누추하고 좁은 것이다. 비록 의풍루가 있으나.....중략.....조선을 가리킴에서 천지의 만물이 생육되고 변방이 안정한지 이제 백년이 되었다. 경주는 땅은 넓고 민가는 조밀하여, 물산은 풍부하고 재화는 넉넉하여 동남 부고(府庫)의 제일이 되고, 관원도 또한 인재를 얻어서 일이 폐하거나 실추된 것이 없어서 관각(館閣)과 누대(樓臺)같은 것조차도 다 일신하게 되었다. 하늘이 전일에 아끼던 것은 바로 오늘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이제 이 누에는 첨유계극(簷帷棨戟)이 순림(巡臨)하고, 시인묵객이 유람할 때, 난간에 기대서서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며 고도의 흥폐(興廢)를 느끼고, 시대와 사물의 변천을 살펴서 편안하고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정을 쏟아 내어 누에 올라 글 짓던 옛 사람의 기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태평시대의 성한 일이며, 물리의 흥하고 폐하는 기틀이 아니겠는가. 아, 평양은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서 산하와 인물의 훌륭한이 경주와 더불어 서로 비슷한데.. 후략

표 3.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의 의미소 분석을 통해 본 소통언어

경주십이영		회고를 위한 의미소	분위기
표제어	구조와 뜻		
鷄林靈異	靈(혼령)+異(다르고 기이함)	蒼蒼(푸름)-葉盡黃(시듦), 廢荒(황폐함), 傷心(상심함), 無限恨(한 많음), 衰草更斜陽(시든 풀에 비추는 석양)	조락
金龜奇勝	奇(기이함)+勝(뛰어난)	異前時(옛 같지 않음), 破碑(깨진 비석), 古寺(옛 절), 甲第有基荒蕪合(터만 남은 저택에 무성한 풀), 園無主(주인 없는 정원), 斷橋(끊긴 다리), 春愁如許深於海(바다보다 깊은 봄시름), 鐵笛(쇠피리)	무상
鮑亭感悔	感悔(안타깝고 유감스러움)	懷古(회고함), 荒淫(거칠고 음란함), 亡國(나라가 망함), 慨獨霑衣(분교하여 눈물이 남), 落暉(빛이 몰락함)	한탄
蚊川聘望	聘望(예를 갖추고 바라봄)	故都(옛 수도), 思(생각함), 蛙吹寒塘(개구리 우는 싸늘한 못), 荒唐(황당함), 慷慨(원통해하고 개탄함), 不洗恨(씻을 수 없는 한)	분통
半月古城	古城(옛 성)	日欲西(지는 해), 雲烟老(늙은 구름 연기), 黃落始林(낙엽 진 시냇), 歲月迷(혼미한 세월), 草萋萋(우거진 풀들)	퇴조
瞻星老臺	老臺(쇠한 누대)	古臺(옛 누대), 地悴天荒(여윈 땅, 거친 하늘), 勢曾傾(기울은 형세), 孤山落日(외로운 산에 지는 해), 故壘悲秋(가을 슬픈 옛 성루)	황망
芬皇廢寺	廢寺(폐한 절)	遺基草(남은 터의 풀), 靑山默默(말 없는 청산), 愁(시름), 空餘(부질 없음)	허무
靈妙舊札	舊札(옛 절)	淒涼(처량), 零落埋(퇴락하여 묻힘), 銅鐸丁(풍경소리), 夕陽(석양), 古鍾依舊(의구한 옛 종), 剝落莓龍(벗겨지고 이끼 낀), 荒(황폐함)	퇴락
五陵悲弔	悲弔(슬픔에 조상함)	王氣銷(사라진 왕기), 弔前朝(전 왕조를 조상함), 荒怪(괴상하고 황당함), 寂寥(적막함), 盡(그치다), 語(움)	절멸
南亭清賞	淸+賞(나름이 없음을 칭송함)	去(떠남), 不依(깃들지 아니함), 可憐(가련함), 天地無情(무정한 천지), 夕暉(석양)	추상
聞玉笛聲	玉笛聲(옥피리소리)	興亡(흥망), 塵(티끌), 殘星落日(해지고 허물어진 성벽), 淚滿巾(수건을 적시게 함)	애도
過金庚信墓	過+金庚信墓(김유신묘를 지남)	千年劍氣(천년의 칼기운), 丹荔(붉은 예지), 壯烈(강렬함), 萬古蛾眉(만고의 아릿다움)	찬양

또한, 서거정의 경주부 객관 동헌기(東軒記)에서는

경주는...인심이 순박하고 옛 신라의 유풍이 남아 있다. 여기저기에 기이하고 경치 좋은 곳이 있고 옛 현인들이 남긴 자취가 있어 전대 인물들의 풍류 또한 상상해 볼 수 있다. 거정이 젊었을 때 영남지방에 다니며 명승지를 거쳐 경주에 이르렀더니 변화하고 아름다운 것이 실로 동남쪽 지방에서 으뜸이었다.....

라고 했던 것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서문에

나타난 경주에 대한 서거정의 인식과 태도로 보았을 때 경주 역사 및 문화경관에 대한 서거정의 애정과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표 4의 의미소 분석을 통한 소통방식을 해석한 결과, '12. 과김유신묘'만을 제외하고는 회고와 영탄, 황망과 퇴락을 담은 이미지 묘사를 통해 '폐허로 가득 찬 풍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서거정이 경주 고유의 풍광과 문화역사경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역설적 소통방식으로 보인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태평성대를 암시하는 국가적 이미지의 상징이자

표 4. '경주십이영'의 소통방식에 깃든 상징성

경주십이영	경관주제	상징 의미	관련 인물	관련 사건	
계림영이 (鷄林靈異)	신령했던 신화와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망국의 회한	· 신라 역사의 시점 · 신라를 대표하는 숲 · 계림과 신라의 일체성	박혁거세	하늘로 오른 말이 떠난 곳에 남겨진 알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석탈해	까치와 함께 바다에서 떠오른 궤에서 나온 석탈해(鶻→昔)	
			김알지	흰 닭이 울고 궤에서 나타난 준수한 사내애(시림→계림)	
금오기승 (金龜奇勝)	폐허 속에 남은 신라의 풍류와 문물	· 신라를 대표하는 산	김생 최치원	신라를 대표하는 지성(知性)	
포석감회 (鮑亭感悔)	정신의 중요함	· 신라 패망의 장소	경순왕	신라 패망의 주역	
문천빙망 (蚊川聘望)	전설적 나라의 폐망에 대한 안타까움	· 신라를 대표하는 강 · 신라를 대표하는 설화	이차돈	순교 전 예고한 이적(異蹟)대로 목을 베자 흰 것이 한길이나 솟아오름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비처왕	사금갑 고사	
			선덕여왕	지기삼사(知幾三事): 여근곡, 사천왕사지, 분황사	
반월고성 (半月固城)	허물어져 내려앉은 신라의 왕업을 상징	· 신라를 대표하는 경물 · 신라 왕업을 상징 · 불교 공인 후 최초로 세운 절-흥륜사	양록	박혁거세와 석탈해의 설화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김알지	시림의 설화	
침성노대 (瞻星老臺)	기울어진 침성대에서 느끼는 역사문화의 감회	· 점성술로 국가 운명을 관찰하던 성지	선덕여왕	언급 없음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분황폐사 (芬皇廢寺)	민가의 반이 절일 정도의 불법 숭상에 대한 비판	· 장육존상 · 신라의 대표적 승려 원효 · 신라의 대표적 화공 술거	원효 술거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저술하다 입적 분황사와 황룡사에 그린 관음보살상과 노승도	
영묘구찰 (靈妙舊刹)	퇴락한 옛 절에서 느끼는 감회	· 관관을 둘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절	선덕여왕	분덕사에서 옮겨온 성덕대왕신종 ¹⁰⁾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오릉비조 (五陵悲弔)	변창함은 가고 쇠락만 남은 신라, 신라 왕조의 무상함	· 신라의 사적을 대표하는 왕릉 · 풍부한 물산을 상징하는 금계와 옥대(新羅三寶)	박혁거세 알영 석탈해 김알지	말이 울고 날아간 곳에서 발견된 혁거세 알영정 우물에서 나온 왕비 까치가 운 물가에 있었다는 석탈해 닭이 우는 숲에 있었다는 김알지	
남정청상 (南亭淸賞)	역사의 무상함 속에 고도를 거니는 흥취	· 혁거세의 탄생지	박혁거세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과 함께 백마와 함께 찾아온 붉은 알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문옥적성 (聞玉笛聲)	옥적소리를 통해 영화를 회상함	· 신라를 대표하는 보물: 신라삼보	진평왕	분황사 장육존상, 황룡사 9층목탑, 진평왕의 상대(聖帶) 등 신라 보물의 망실과 파괴	
과김유신묘 (過金庾信墓)	충절이 깃든 김유신	· 신라의 대표적 장수 · 신라의 대표적 충군	김유신과 천관녀	삼국통일의 주역과 그의 연인	· 신라 건국 신화의 주역
			황창량	불과 8세로 임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의 수도에 들어가 백제왕을 살해	

파괴된 폐허지만, 조선 왕조를 통해 다시 복원되고 부흥해야 할 민족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유적이며 문화였다.

또한, 그 소통방식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신화와 설화, 인물, 보물 그리고 산수를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화려함과 신비함의 잔해를 당시의 시각으로 조명함으로써 양가적(兩價的)이고 역동적인 힘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4. '경주십이영'에 표현된 폐허의 미

백연태(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거정의 유람시는 득의한 치자(治者)이자 문화발양자라는 관각문인의 위치에서 오는 자부감과 거드름 등을 바탕으로 보편적 사물을 통한 각종 대구 맞추기, 일반적으로 통용될만한 구절의 조합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 강석근(2007)의 견해와 같이 서거정은 '경주십이영'에서 신라문화 가운데 오직 충(忠)과 의(義) 그리고 열(烈)이 묻어나는 내용만을 긍정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것들을 현창하기 위해 노력한 것일까? 그러나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을 통해 우리는 조선조 초기 한 시인이 경주의 풍광과 신라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림(2003)은 '서거정 기문에 나타난 서술전략 고찰'이라는 연구를 통해 서거정은 조선의 창업에 이은 수성(守成)의 시기에 살던 문인으로 그의 기문들이 대체로 수성이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가장 중심적 서술전략이자 사조의 중심에 '현양 중심적 국토공간 서술'을 강조하여 문장보국(文章輔國)의 실천을 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라 문화에 대한 탄식은 서거정 이후 500년 후의 시인 조지훈(1920~1968)의 '계림애창(鷄林哀唱)'에서도 유사한 상징적 이미지로 반복되고 있다.

"임오년 이른봄, 내 불현듯 서라벌이 그리워 표연(飄然)히 경주에 오니 북사쪽 대숲에 철 아닌 봄눈이 뿌리는 4월일레라. 보름 동안은 옛터에 두루 놀 제 계림에서 이 한 수(首)를 얻으니 대개 마의태자의 혼으로 더불어 같은 운(韻)을 밟음이라. 조고상금(弔古傷今)의 하염없는 탄식(歎息)일진저!"

'경주십이영'에서 보이는 회고와 영탄의 시어는 '황성옛터'의 노래가사에서 보이는 월색, 폐허, 꿈의 거리, 허물어진 성, 빈터, 방초, 구슬픈 벌레소리 등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랫말 속의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이 잠 못 이뤄"의 주체 또한 시대를 앞서 신라의 허물어진 고도 경주를 찾았던 서거정의 정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십이영'에서 보이는 폐허의 심상은 파괴된 현실의 경관으로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영의 내용에는 모두 하나 같이 신라를 대표하는 승경과 경물은 물론

사건과 인물이 관련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시간 과거일 뿐 서거정의 시대와 가치관으로 본 당시의 풍경은 폐허이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 두 개의 대립되는 이미지 즉 소멸과 파괴, 멸망의 이미지와 함께 생성, 창조, 구원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폐허"라는 단어는 그것이 사용될 때부터 이미 그것을 극복하는 문제까지를 담고 있는 역설적이고 수사적인 은유이다(조은주, 2008)라는 말과 같이 폐허의 수사학은 그 기저에 비극적 사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병적 낭만주의, 감상주의, 퇴폐주의 등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폐허는 과거와 현재, 파멸과 생성, 파괴와 건설, 죽음과 삶 등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사유케 하는 여운을 기저에 깔고 있으며, 이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혹은 미래를 지향하는 반성을 선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서 발견되는 풍경의 미학은 가장 은유적이면서도 역설적이며 또한 상징적이고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폐허이다.

폐허는 시간의 상흔을 간직하며 과거의 화려한 영화는 소멸되고 현재의 초라한 상태는 쓸쓸히 방치된다. 폐허의 풍경은 다채로우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유적지일 수도 있고(조경진, 2006), 영원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대자연 앞에서 일순의 삶을 살고 스러지는 왜소한 인간, 대지의 티끌로 환원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느낌에 휩싸일 수도 있다. 폐허를 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는 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에 대한 상대적 왜소감 그리고 그 폐허를 통한 거대한 자연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자기 승고의 자부심이 중복되어 있다(강영조, 2003). 따라서 '경주십이영'에 담긴 경주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서거정 고유의 "폐허미학적 수사학"은 텍스트에 대한 성실한 독해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더 높은 지향점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수사학적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은 신라의 수도 경주의 피폐하고 폐허화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감회를 읊고 있다. '경주십이영'은 신라문화와 문물의 대표적 성지인 계림, 반월성, 나정, 오릉 그리고 장소성 깊은 금오산, 포석정, 문천,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김유신묘 등을 중심으로 거기에 깃든 설화와 상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노래함으로써 기존 '팔경'과는 다른 상징적 폐허경관의 메타포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경주십이영'은 서거정의 팔경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팔경시와 비교할 때, 제영의 구조와 형식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의미와 행위를 담는 인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주십이영'의 제영 순서를 추적할 때 2개 이상의 시각회상으로 이루어

어진 것으로 보이며, 봄에 지어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오래 되고(古, 舊), 부서져 허물어지고(廢), 늙고(老), 슬프고(悲) 등의 아쉬움과 슬픔의 정조를 지배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형식미보다는 일정한 경물에 대한 제영자 서거정 자신의 느낌과 그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서거정이 '경주십이영'을 통해 표현한 폐허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하는 영기(靈氣)와도 같은 아우라(aura)의 12가지 고고한 분위기를 갖는 역사문화경관에 담긴 총체적 신라문화에 편재한 질에 대한 정성적 경험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읽혀진다. 경주의 다양한 경승과 경물 등 가시적 영역의 문명적 폐허 뿐만 아니라 신라의 신화와 전설 등 비가시적 영역의 문화적 폐허에 대한 반복, 병렬, 병치 그리고 대조를 통한 회고와 영탄은 '경주십이영'에 나타난 서거정이 '신라'를 바라보는 사유방식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 나타난 소통방식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십이영'에서 발견되는 풍경은 외면적으로 폐허화된 현실의 경관을 통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어휘소의 대부분은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징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화를 이해하고 그 도시와 소통하고자 하였던 회고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며, 또한 내적으로는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은 반성적 사유의 내적 근원에는 조선 초기 23년간 문형을 전담하며, 경주에 대해 긍정적 사고와 관념을 견지했던 인물 서거정에게 '폐허화되고 몰락한 경주'는 새 왕조를 통해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경관 대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서 발견되는 풍경의 중심에는 가장 은유적이면서도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 '폐허'가 있으며, 폐허성의 경험을 반성적 경험의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폐허를 통해 문명에 대한 자연의 승리를 예찬하기 보다는 폐허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꾀하고자 하는 소통방식의 폐허미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허화 된 공간이나 경관에 대한 미적 발견은 근대 미학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승관을 대표하는 "팔경"에서 송고미나 우아미 등의 고전적 아름다움과는 다른 형태의 미학이 표출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경관의 폐허에 대한 미적 사고는 비단 현재 조경설계에서 보이는 과거와 소통하며 과거와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하는 설계언어나 설계기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거정을 비롯한 다수의 문인들이 허물어지고 퇴락한 옛 경관을 사유하고 회고하는 회고시 등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주 1. 삼기(三奇)는 금척(金尺, 금자)과 만파식적(萬波息笛, 파리), 화주(火珠)의 3가지를 말하는데, 화주를 빼고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팔괴(八怪)는 여덟 가지 신비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남산부석(南山浮石), 문천도사(蚊川倒沙), 계림황엽(鷄林黃葉), 백물송순(柏栗松筍), 금장낙안(金丈落雁), 암지부평(鴨池浮萍),

불국영지(佛國影池), 나원백탑(羅原白塔)을 일컫으며, 이 이외에도 선도효색(仙桃曉色) 또는 금오만하(金熬晚霞)를 덧붙이기도 한다.

- 주 2. 일반적으로 회고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련한 기억과 흔적만을 남긴 역사유적지를 바라보며 인간사의 본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덧없음을 슬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를 지칭한다. 따라서 회고시에서는 반드시 작가의 역사유적 방문을 전제로 하며 변하지 않는 특정 역사사건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영원한 인간사의 본질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육조(六朝)의 영사시(詠史詩)와 구별된다(유혜영, 2006).
- 주 3. 전수린 작곡, 왕평(王平) 작사의 1928년작 가요이다. 이 곡은 당시 순회극단 연극사(研劇舍)가 개성공연을 하고 있을 때 작곡된 것으로 폐허가 된 고려의 옛 궁터 만월대(滿月臺)를 찾아 느낀 쓸쓸한 감회를 그린 노래이다. 가사는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스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가없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서 잠 못 이루어 구슬픈 별레소리에 말없이 눈물겨요"로 이어진다. 이 노래는 가수 이애리수가 불러 크게 히트, 삼시간에 전국에 퍼져갔으며, 그로 해서 조선총독부는 이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시켰으나 계속 불렀다.
- 주 4. 타포름사원은 12세기에 자야바르만 7세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만든 불교 사원으로 260개의 신상과 39개의 첨탑 그리고 566개의 집단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사원은 당시 3,000명의 성직자와 1만2,000명의 일꾼들이 관리했다고 한다. 면적은 가로 600m, 세로 1,000m로 앙코르와트 유적에서는 큰 사원 중 하나였다고 하나 크메르왕국 멸망 후 밀림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지금은 스텝나무 같은 열대림이 건물 전체를 두덮고 있다(<http://blog.naver.com>).
- 주 5. 말의 비유(figures of speech) 또는 '도식(schemes: '형식'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을 가리키는 말로, 표준용법에서의 이탈이 기본적인 단어들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배열 순서에 있는 표현법이다. 즉, 은유와 기타 생각의 비유처럼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단어들을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는 일반적인 언어의 비유를 지칭한다(<http://100.naver.com>).
- 주 6. 서거정의 문학과 행적을 정리한 위 글에 따르면, 그는 경주를 4번 다녀간 것 같다. 첫번째는 그가 세종 20년인 1438년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서 1444년 세종 26년에 문과에 급제하기 전시기이고, 두번째는 그는 세종 30년 1448년 고향인 대구에 들렀다가 경주에 와서 <차운경주지풍무> 시를 남긴 바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가 세종 8년인 1462년 공무로 영천에 들렀을 때 경주에 왔으며, 네 번째는 세종 7년 삼남지방을 방문할 때 경주에 들른 것으로 본다(이종묵, 1998).
- 주 7. 서거정, 《四佳集》 문집 권5, 《遊松都錄》 "...今觀遊松都錄 其周訪故宮 黍離盈眸 鶴嶺氣銷 龍井已涸 感徐田 悲陸庭 上下五百載 俯仰興懷者 則其辭慷慨而沈鬱矣 英雄豪傑 公侯將相 風流雖謝 而遺跡尚存 紫洞淒迷 黓岩荒涼 雲飛鳥逝 轉囑傷魂者 則其辭悲恸而悠長矣."(강석근, 2007. 재인용)
- 주 8. 《史記》〈宋徽子世家〉, "麥秀之嘆 箕者朝周 過故殷墟 感宮室毀壞 生禾黍 心傷之 因作麥秀之詩歌之曰 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彼重兮 不與我好兮" (강석근, 2007. 재인용)
- 주 9. 조선 영·정조 연간의 실학자 유득공의 한시집으로 1877년 저술된 활자본으로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77년(고종 14) 간행되었다. 저자는 당시 실학사대가의 한 사람으로 문명(文名)을 떨친 시인인데, 고조선 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국도(國都)가 되었던 21개 도읍지의 사적(史蹟)을 칠언절구의 한시 43편으로 읊은 것이다. 이 중 경주에 대해 읊은 시는 다음과 같이 총 6수로 구성되어 있다.
新羅의 慶州 一
辰韓六部澹秋烟 진한땅의 옥부에 가을 연기가 담담하게 피어나니
徐苑繁華想可憐 신라 서울의 변화함을 상상하니 가히 아어쁘네.
萬萬波波加號笛 만만파파의 이름을 더한 호소왕의 만파식적을

橫吹三姓一千年 빛기 불면서 삼성이 돌러가며 일천년을 누렸네.
 二
 幾處青山幾佛幢 몇 곳의 푸른 산에 몇 개의 불당이 있었던?
 荒池鴈鴨不成雙 황폐한 안압지엔 안압이 쌍을 이루지 못하네.
 春風谷口松花屋 봄바람 부는 골짜기 어귀의 송화옥 속에서는
 時聽寥寥短尾彪 때때로 적막하게 꼬리 짧은 개 짖는 소리 들리네.
 三
 料峭風中過上元 집짐 높아지는 바람 속에서 상원 보름을 보내니
 切切相踏踏歌喧 도도 달달하는 답가 소리가 시끄럽게 퍼지는구나.
 年年糲飯無人祭 해마다 찻쌀밥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
 一陣寒鴉噪別村 한 떼의 차가운 까마귀가 다른 마을에서 우지 짖네.
 四
 金鰲山色晚蒼蒼 경주 금오산 산빛이 저물녘에 푸르고 푸르니
 渲染鷄林一半霜 길게 물이 든 계림은 한 결같이 반이나 서리로다.
 萬疊伽椰人去後 만겹으로 중첩한 가야산에 사람이 떠나간 이후로
 至今紅葉上書莊 지금까지 상서장에는 붉은 단풍잎만 텅굴고 있네.
 五
 城南城北蔚藍峯 성남쪽과 성북쪽에 뿔뿔이 들어찬 쪽빛 봉우리에
 落日昌林寺裏鍾 해는 넘어가고 창림사의 종소리만 울려 퍼지네.
 間補東京書畫傳 한가로이 동경에서 글씨와 그림의 책을 보완하니
 金生碑版率居松 김생이 쓴 비석판과 술거가 그린 소나무가 있네.
 六
 三月初旬去踏青 삼월달 초순 청명절에 답청놀이를 하러 갔더니만
 蚊川花柳鎖冥冥 문천가의 꽃과 버들이 어둑어둑하게 잠귀 있네.
 流觴曲水傷心事 굽이치는 물에 술잔 띄우고 마시던 일이 상심되니
 休上春風鮑石亭 봄바람이 불 때에는 포석정엘랑 오르지 마시오.

주 10. 종명(鐘銘)에 의하면 신라 35대 경덕왕이 그의 아버지 33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큰 종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의 아들 혜공왕이 뒤를 이어 771년(혜공왕 7)에 구리 12만 근(27t)을 들여 완성하고 성덕대왕신종이라 불렀다고 한다. 원래 봉덕사에 걸었던 것을 1460년(세조 6) 영묘사에 옮겨 걸었는데, 홍수로 절이 떠나려가고 종만 남았으므로 현 봉황대 옆에 종각을 짓고 보존하다가 1915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http://kin.naver.com>).

인용문헌

1. 강영조(2003) 풍경에 다가서기. 효형출판.
2. 강영조, 김영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2): 2-36.
3. 강우방(2002) 영겁 그리고 찰라(신라를 담은 미술사학자의 사진 수상). 열화당.
4. 강석근(2007) 서거정의 경주12영고. 경주문화. 11: 1-28.
5. 김기립(2003) 서거정 기문에 나타난 서술전략 고찰. 한국고전연구. 9: 191-224.
6. 김성우(2006) 15세기 중·후반 훈구관료 서거정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대구사학. 83: 67-103.
7. 김정균(1994) 경주고적시문화론. 형설출판사.
8. 김학동, 조용훈(1997) 현대시론. 서울 새문사.
9. 민병수(1988) 서거정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3: 5-34.
10. 민주식(2005) 알프스의 미에 관한 게오르그 짐멜의 이론 연구. 미술·예술학 연구. 2: 81-305.
11. 박규환, 이동언(2008) 루이스 칸의 건축에 나타난 폐허성 경험의 맥락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12): 199-206.
12. 박성순(1990) 세계 서거정의 시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박종혁(1989) 四佳 서거정의 시의식과 臺閣之詩의 전형. 한문학논집. 7: 67-98.
14. 박희웅(1985) 서거정의 한시 연구: 자연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배정환(2006) 승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LAnD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16. 백연태(2003) 서거정의 유람시 고찰.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2): 119-153.
17. 서거정. 사계집. 권 1.
18. 서거정. 사계집. 권 5.
19. 심경호(2005) 한시기행. 이가서.
20. 송희준(1996) 서거정 문학연구: 형성배경, 문학관, 시세계의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안미영(2001) 서거정 영물시의 특성 연구. 수련어문논집. 26·27: 99-138.
22. 안장리(1997),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 소재 팔경시의 특성. 한국한문학회연구.
23. 안장리(2002) 한국의 팔경문학. 김문당.
24. 유혜영(2006) 유적지에서의 감회, 초당회고시의 형성과정과 유형연구. 중국학보. 54: 85-101.
25. 이기봉(2007)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푸른역사.
26. 이문기(2009) 문헌으로 본 나정. 퇴계학과 한국문학.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44집: 223-264.
27. 이종건(1985) 서거정 시문학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 이종건(1990) 서거정 시문학 연구. 개문사.
29. 이종욱(1998) "서거정의 삶과 문학활동",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 임기묵(2001) 서거정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정소연(2002) 서거정의 문학적 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정종대(1998) 서거정의 시와 관인식. 국어교육.
33. 조정진(2006) 폐허의 미학, 조정진자신의 새로운 가능성. LAnD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34. 조은주(2008) 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폐허'의 수사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5: 7-40.
35. 최명규(1981) 서거정과 그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최은주(2001) 조선전기 팔경시의 창작 특성. 대동한문학. 15: 299-331.
37. 한인석(1989) "서거정 문학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8. 황위주 역주(198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역주", 《신라문화》, 1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9. <http://100.naver.com/100.nhn?docid=741939>
40. <http://ask.nate.com/knownow/view.html?num=1153893&sq=%C6%F3%C7%E3+%B9%CC%C7%D0>
41. <http://blog.daum.net/pundarika/1092359>
42. <http://blog.naver.com/eunju6187?Redirect=Log&logNo=80065553130>
43. <http://cafe.daum.net/callipia/4Lfl/232?docid=7nd0l4Lfl232l20020724215038&q>
44. <http://db.hanmun.or.kr>
45. http://db.hanmun.or.kr/pds_board/read.html?code=history&id=15&searchstr=&qu=&page=1&category=&list_no=15
46.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Id=13&dir_id=13&eid=BQn9DldPIEIEFSMC6J8ryv923viKhQu7&qb=7JiB66yY7IKs&enc
47. http://local.daum.net/map/index.jsp?URLX=487448&URLY=1504827&URLLEVEL=14&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

원 고 접 수 일: 2009년 4월 28일
 심 사 일: 2009년 5월 25일(1차)
 2009년 6월 1일(2차)
 2009년 6월 6일(3차)
 게재 확정 일: 2009년 6월 8일
 3인인명 심사필